

만주어 격어미 {-de}의 통사, 의미 특성 연구
-한국어, 몽골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Otgontuul.T*

1. 머리말

알타이제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문법체계의 유사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격은 알타이제어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문법범주로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선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를 중심으로 몽골어와 한국어의 여·처격²을 비교 연구해 보겠다.

고전몽골어의 여·처격어미는 {-tur/-tūr, -dur/-dūr}으로 나타나는데 {-da, -de, -ta, -te}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³ Hasbaatar(1982), Мижиддорж, Го.(1976), Poppe(1960)들은 몽골어의 여·처격 {-da/-de, -ta/-te}를 기원적으로 만주어 {-de}와 같은 어미로 보았고 알타이어의 측면에선 여·처격어미가 다른 격어미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형태 중 하나라고 보았다. 또한 Poppe(1955)에서 여·처격어미 {-du-r}는 몽골어의 형용사 파생접미사 {-du}와 방향을 가리키는 {-r}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이고 {-dur}의 {-r}는 'qoi-gu-r', sai-tu-r'의 {-r}이라고 보았다.

金芳漢(1983:188)에서는 중세한국어의 {-ai~ai}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a~e}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Sinor, D.(1976:121), Poppe, N.(1977:64)에서는 모든 돌궐어에서도 여·처격어미 {-ta/-te -da/-de}의 형태가 있다고 보았고 Ramstedt, G.J(1985:38)에서는 통구스어를 제외한 모든 알타이어에서 어미 {-ai}(혹은 -a)와 그 변이형 {-gai}(혹은 -ga)를 가진 격은 분명히 여·처격의 의미를 갖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Hasbaatar(1982:137)에서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da/-de, -ta/-te}들 중에서 {-de}의 형태를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와 완전히 같다고 보았다.

만주어는 구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주어의 격어미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연구하는데에 많은 어

* 몽골국립대학교, 원전-알타이어학과.

¹ 만주어의 격어미에 대하여 박은용(1973), 최동권(2004), Мижиддорж, Го. (1976), Захарова, И. (1897), Hasbaatar(1991), Haenish, E (1961) 등의 연구가 있다.

² 이광호(2005:255)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처격조사는 {에, 예, 예}와 소위 특어 처격어미로 불리는 {의, 의} 등이 쓰였으나 근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에}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처격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여격은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의(의, 시)}와 {그에(게, 기)} 및 {손디}와의 결합형인 {인그에, 의그에, 스그에, 시, 씨, 이손대, 의손디}등이 있었으나 근대한국어에서는 {의게}와 {씨}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현대국어에서는 {에게}, 존칭에는 {께}로 변화했다. 홍용표(1994:343)에서는 근대국어의 처격어미로 {에, 예, 의}가 있다고 보고, 여격어미로 {의게, 씨}가 있다고 보았다. 이익섭(2000:175)에서는 현대국어의 {에}를 처격조사로, {에게}를 여격조사로 보고, {한테, 더러, 에서, 에게서}도 여격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남기심(2005:101)에서는 {에, 에게, 한테, 게, 더러, 보고}를 조사격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형태가 많고 그 의미가 또한 다의적(多義的)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³ 이 글에서는 현대몽골어 여·처격어미인 {-d/-t}를 예문에서 사용하였다.

리움이 따른다. 따라서 18세기에 한글로 쓰였던 만주어 학습교재인 『청어노걸대』, 『삼역총해』와 당시에 인쇄된 만주어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이들 언어에서 나타나는 여·치격의 상호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의미론적인 특성

만주어, 몽골어의 여·치격어미는 시점, 공간, 목적의 범위를 나타내는 치격(locative), '주다'류의 동사와 관련되어 '누구에게, 무엇에게'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유정명사(有情名詞)가 무엇을 받을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여격(dative)으로 나누어 지만⁵ 한국어처럼 형태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의미상의 차이만 존재한다. 때문에 각 언어의 예문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제외한 두 언어의 경우엔 여격과 치격의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여·치격어미라 표기하겠다.

2.1 치격의 의미 특성

처소나 지향점, 또는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주는 격을 치격(locative)이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처소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이 일어나는 처소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그쪽으로 향해 가는 지향점을 가리키는 기능, 추상적인 공간, 단위, 도착점, 원인, 유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번 단락에서는 만주어의 여·치격어미 {-de}, 몽골어의 여·치격어미 {-d/-t}와 한국어의 치격어미 {-에/-에서}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세 언어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1.1. 공간적인 범위

만주어의 여·치격어미 {-de}는 몽골어의 여·치격어미, 한국어의 치격어미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위치한 공간적(空間的)인 범위를 나타내준다.

- (1) 가. dungdzo dulimbai boode tefi buda jembi
나. 董阜이 줌 당 에 안자서 밥 먹더니 <三譯:1:6b>
다. dunzo dund ger^t suuj hool idne
- (2) 가. sejen de juwe fujin bi
나. 술의 에 두 부인이 있다 <三譯:2:20a>
다. tergend hoyor hatan bii

(1가)의 'dulimbai boo', (2가)의 sejen 등 만주어 예문에선 명사에 여·치격 {-de}를 붙여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나)와 (2나)의 한국어 예문에선 '중당, 술의' 등 명사 다음에 치격어미 {에}가 나타나고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킨다. 몽골어 예문 (1다)와 (2다)에서도 역시 'ger, tergen' 등에

⁴ 조선 시대 사역원에서 만주어 학습서로서는 『청어노걸대(靑語老乞大)』, 『소아론(小兒論)』, 『삼역총해(三譯總解)』, 『팔세아(八歲兒)』 등 청학서가 있다. 이들에 대해 성백인(1999:125), Song Ki-Joong (2001:157)을 참조. 『청어노걸대』는 조선 사역원에서 편찬한 만주어 학습서로서 1703년에 간행된 『청어노걸대』가 있으나 현재 전해져 오는 것은 없다. 후에 김진하가 수정한 『청어노걸대신석』이 1765년 평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현존하는 『청어노걸대신석』은 동양어학교본, 대영도서관본, 그리고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책판의 탁본, 그리고 탁족본 등 모두 4 종이 있다. 동양어학교본 『청어노걸대신석』은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간행되는 <인문과학> 제11집(1964년)과 제12집(1964년)에 사진판이 게재되어 있다.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소장의 『청어노걸대』도 최근 학회에 보고된바 있으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역원 역학시 책판 가운데 『청어노걸대』 책판 25판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정광(1998)에 의해 소개된 탁족본이 있는데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⁵ Энэрбаян Ц. (1998:150)참조

⁶ 만주어 여치격어미 '-de'에 대하여 박은용(1973:45)에서는 "滿洲語에서의 '-de'는 現代韓國語의 '에'와 마찬가지로 場所, 方向을 나타내는 輿格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것은 名詞(代名詞, 數詞, 形容詞包含)下는 勿論 動詞의 名詞形下에서도 使用되며, 綴字에 있어서는 聯用 單用 다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처격어미 {-t}, {-d}가 붙어 장소나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⁷

2.1.2. 추상적인 범위

만주어,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와 한국어의 처격어미는 구체적인 공간이 아닌 추상적인 공간에도 쓰이는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3) 가. mini mujilen **de** inu uttu gūnihabi
 나. 내 믿음 **에**도 이리 생각했 노라 <清老:1:15a>
 다. minii setgeld mōn iinhūū sanab
- (4) 가. mini gūnin **de** acahabi
 나. 내 생각 **의** 마자시니 <三譯:5:3a>
 다. minii sanaand niitseeje

(3가, 나) 'mujilen de (믿음 에)', (4가, 나) 'gūnin de (생각 의)'는 각각 만주어와 한국어로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몽골어 예문 (3다)의 'setgeld'와 (4다)의 'sanaand'역시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2.1.3. 지향점 범위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와 한국어의 처격어미처럼 공간적인 범위 외에 다음 예문 (5), (6)와 같이 무엇이 향하는 곳, 즉 그 지향점(指向點)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 (5) 가. buda udame jefi yamjishūn **de** kemun hecen **de** dosiki.
 나. 밥 사 먹고 夕陽 **에** 皇城 **에** 드자 <清老:4:11a>
 다. hool avch ideed üdesh **de** hotod oryo
- (6) 가. juwan biya de wang ging **de** isinafi
 나. 十月 **에** 王京 **에** 니르러 <清老:1:21b>
 다. arban sard wang gind hüreed

(5가, 나, 다) 'hecen de, 皇城에, hotod'와 같이 만주어와 몽골어 및 한국어에서는 공통적으로 지향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몽골어의 경우 (5다)의 'udesh'와 같은 몇몇 단어(그 중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다.) 뒤엔 여·처격어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몽골어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도⁸ 찾아볼 수 있다.

2.1.4. 시간적인 범위

몽골어의 여·처격과 한국어의 처격은 시간적(時間的) 범위를 가리키는 일에 널리 쓰이며 만주어의 여·처격 {-de}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6) 가. nadan biya juwan nadan **de** tasha erin **de** banjiha
 나. 七月十七日 **에** 寅時 **에** 낫노라 <清老:8:20a>

⁷ 몽골어에서는 다음 예문 (1다)와 (2다)처럼 yadan-a(밖), dotur-a(안), deger-e(위), door-a(아래), emün-e(앞) 등 장소를 가리키는 어떤 단어 다음에 여·처격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1가)와 (2가)처럼 만주어에서, (1나)와 (2나)처럼 한국어에서는 처격어미가 나타난다.

- (1) 가. mini derei juleri **de** uthai yooni gaju.
 나. 내 옷 **앞**쪽 측시 오로 가져오라 <清老:8:3b>
 다. minii nuuriin omno **de** darui avcir
- (2) 가. bi liyoodung hoton dorgi **de** tehebi
 나. 내 遼東城 **안**회 사노라 <清老:3:13a>
 다. bi liyoodung hot dotor **de** suudag

⁸ '언제, 오늘, 내일, 모래, 어제, 그제' 등과 같이 시간적 의미를 갖고있는 단어 뒤에는 처격 '에'를 쓰지 않는다.

- 다. doloon sariin arban doloond **de** bar tsagt töröb
 (7) 가. bi ere biya ice **de** juraka
 나. 내 이 들 초심에 씨앗노라 <清老:1:1b>
 다. bi ene sariin negend **de** mordson.

만주어에서는 (6가) 'juwan nadan de', 'tasha erin de'와 (7가) 'biya ice de'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동작이 일어나는 때를 나타내고 있다. (6나)와 (7나)의 '十七日, 寅時에'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처격어미 {에} 역시 시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몽골어도 (6다)와 (7다)의 'arban doloond, bar tsagt, negend'등의 단어들 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1.5. 셈의 단위기준

만주어 여·처격어미 {-de}는 한국어의 처격과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처럼 사물을 세는 단위(單位) 명사나 셈이 가능한 명사와 결합하여 단위나 셈의 기준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 (8) 가. orin falı jiha **de** emu ginggin
 나. 스펜 닛 돈 예 한斤이라 <清老:2:4a>
 다. horin zoosond **de** neg jin
 (9) 가. sunja fun menggun **de** emu hiyase je bele
 나. 오 쑤 은 예, 혼 물 조뵈이오 <清老:1:12a>
 다. taban pün möngönd **de** neg düü honog budaa

만주어와 한국어에서는 (8가, 나)의 'orin falı jiha(스펜닛돈)'과 (9가, 나)의 'sunja fun menggun(오쑤은)'등 수사 다음에 {-de}, {-에}가 결합하여 셈 단위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몽골어에선 (8다)의 'horin zoos', (9다)의 'tavan pün möngö'와 같이 비율, 평형, 제량단위의 의미를 보여준다.

2.1.6. 도착점

만주어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는 도착점만을 나타내 주는 반면 한국어의 처격어미 {에}는 도착점, {에서}는 출발점(出發點)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에서}의 출발점이란 의미는 만주어와 몽골어의 탈격어미와 대응하는데 이에 대하여 뒤에 3.1에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다.

- (10) 가. ere biyai manashûn gemun hecen **de** isinambio isinarakûn
 나. 이 들 그믐의 皇城 예, 니르랴 니르지 못하랴 <清老:1:1b>
 다. ene sariin süüleer hotod **de** hürne üü, hürehe ügüi yu
 (11) 가. hafan cooha gemu: nan jiyûn **de** jihe.
 나. 관원 군식 다 南郡 예, 오다 <三譯:9:15a>
 다. tüşimel tsereg töm nanjind **de** ireb.

예문 (10가, 나)와 (11가, 나)에서는 만주어 {-de}와 한국어 {에}가, (10다)와 (11다)에서는 몽골어 {-d}가 앞의 명사와 결합하여 행동의 마지막 장소인 도착점을 나타내고 있다.

2.1.7. 비교의 의미

만주어 {-de}와 몽골어의 여·처격, 한국어의 처격 모두 비교나 원인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다음 예문 (12), (1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12) 가. seibengge **de** duibuleci umesi sain oho
 나. 以前 거세 비흐면 2장 초타 <清老:3:5a>
 다. ömnöh züild **de** düitsüülbel mash sain bolob
 (13) 가. mini menggun **de** adalingge be gaju

- 나. 내 銀 과 곳 혼 거슬 가져오라 <清老:8:8b>
 다. minii möngönd adiliig avch ir

예문 (12가, 나, 다)와 (13가, 나, 다)에서 나오는 여·처격어미와 처격어미들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어미들의 명사구적 의미는 해당되는 명사와 그것을 지배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만주어와 몽골어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몽골어에서는 (12다)와 (13다)처럼 명사 뒤에 ‘비교하다, 대조하다, 비슷하다, 비유하다’와 같이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면 명사는 여·처격어미 {-d/-t}와 공동격어미 {-tai/-tei}를 취한다.

2.1.8. 원인의 의미

만주어의 {-de}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한국어의 처격어미 중 일부는 일반 명사와 결합하여 원인을 나타낸다.

- (14) 가. ere juwe niyalma gala **de** muke i cooha bucembi
 나. 이 두 사람의 손 ᄃᆞᆫ 물 군식 죽으리라 <三譯:4:3b>
 다. ene hoyor хүний гарт усний тсereg үһене
 (15) 가. aga **de** etuku uksin usihif
 나. 비 ᄃᆞᆫ 옷과 갑옷시 저저서 <三譯:9:1b>
 다. boroond huvtsas huyag noroj

예문 (14가, 나, 다)와 (15가, 나, 다)에서는 만주어, 한국어, 몽골어 모두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1에서 보던 만주어,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와 한국어의 처격어미는 시간, 장소, 공간, 썸의 단위(單位), 도착점의 의미 외에 비교, 원인, 유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어의 처격어미 {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 이외에 출발점이란 의미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두 언어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⁹

2.2 여격의 의미 특성

만주어, 몽골어의 여·처격어미는 ‘시점, 공간, 목적의 범위를 나타내는 처격(locative), ‘주다’류의 동사와 관련되어 ‘누구에게, 무엇에게’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유정명사(有情名詞)가 무엇을 받을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여격(dative)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형태상의 차이는 존재 하지 않음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만주문헌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여격¹⁰ 형태 {의게, 씌, 드려}와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가 포함된 문장 이외에 이에 대응되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d, -t}가 포함된 예문을 포함시켜 세 언어의 비교를 통해 각각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다.

- (16) 가. tere gucu **de** gamafi bu
 나. 저 벗 의게 갖다가 주자 <清老:3:9b>
 다. ter nöhört avaachij ög
 (17) 가. ere aisin be cooha i niyalma **de** šangna
 나. 이 금을 군스 사람 의게 상하라 <三譯:2:12b>
 다. ene altiig tsergiin хүнд shagna

위 예문 (16가, 나, 다) ‘gucu-de (벗의게, nöhört)’, (17가, 나, 다) ‘niyalma de (사람의게, хүнд)’에서 만

⁹ 몽골어에서 출발의 의미는 탈격 ‘-āča/-eče’ 어미로 나타나는 데 Ramstedt(1985:39)에서는 ‘몽골어에서 어미 ‘-a’ (처격을 나타냄)와 출발격 어미 ‘-āča’의 연결은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라 보고 처격 어미 ‘-a’에 출발격 어미 ‘-āsa, -ās’가 결합된 형태인 탈격 ‘-āča’ 속에 여·처격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잔존해 있다’고 보았다.

¹⁰ 한국어의 여격(與格, dative)은 체언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을 자리에 서게 하는 기능 외에 동작의 상대를 나타내기도 한다. {에게, 께, 한테, 더러, 보고}등이 있는데 각각 약간의 특징이 있어서 {께}는 존칭으로 쓰이며, {더러, 보고}는 그 분포가 제약되어 있고 구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격은 대개 유정물(有情物) 명사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처격과 대조된다. 앞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광호(2005:257)에서는 근대국어 여격어미는 {의게}와 {씨}가 있었고 현대국어에서는 {에게}, 존칭에는 {께}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여격 어미 {드려, 손더}는 중세국어에서 매우 빈도가 높은 것이었으나 근대국어 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다가 소멸되었다.

주어와 한국어 또는 몽골어의 여격어미가 사람을 나타나는 명사에 붙어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만주어의 여·처격 {-de}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d/-t} 뒤에 일반 재귀-소유격어미¹¹ {-aa/-ee/, -oo/-öo}와 연결된 형태¹²에 대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여격 {의게, 씬}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18) 가. juse omosi **de** sui gûnirakû
 나. 子孫 의 罪 罪 쏘이지 아니하면 <清老:7:13a>
 다. hövgüüd ach nar**taa** hilents sanahgui
- (19) 가. ama eniye **de** hiyoošungga, ahûn deo **de** senggime
 나. 父母 的 孝 하고 兄弟 的 友 愛 하고 <清老:7:12a>
 다. aab ecj**dee** achlaltai ah düü**dee** elegseg

예문 (18가, 나)와 (19가, 나)에 나타나는 만주어와 한국어에서는 직접 여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18다)와 (19다)의 몽골어의 {-taa/-tee/-daa/-dee}어미와 대응한다. 몽골어와 만주어의 여·처격어미는 높임의 대상에 따른 구별이 없는 반면 예문 (18나)와 (19나)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에는 {의}, 그렇지 않은 대상의 경우에는 {게}를 쓰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2.2에서 보면 만주어의 여·처격 {-de}는 몽골어와 한국어처럼 어떤 사물의 직접 수령자나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3. 만주어 {-de}가 여·처격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만주어 {-de}는 원래의 여격과 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외에 몽골어와 한국어의 방향격, 구격, 공동격의 의미와 몽골어의 탈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단락에서는 만주어 {-de}가 여·처격이란 본래의 의미 이외에 몽골어와 한국어의 다른 격과 대응하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만주어 {-de}가 몽골어 탈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서는 탈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ci}¹³ 어미가 있지만 {-de}가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몽골어의 탈격의 의미와 대응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만주어 {-de}는 한국어의 여격어미 {의게/게}와 대응하여 여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달리 몽골어에서는 탈격어미 {-aas/-ees/-oos/-öös}와 대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¹⁴

- (20) 가. bi daci nikan niyalma **de** bithe de taciha be dahame
 나. 내 본디 漢 사람 的 罪 咎 咎 必 化 心 으로 <清老:1:2b>
 다. bi ugaas hitad hüne**ees** bichig sursan tul
- (21) 가. jiyangjiyûn sakda hûlha **de** uttu geleci
 나. 장군이 노적 的 罪 咎 咎 此 處 處 處 處 處 <三譯:1:18a>
 다. janjin högshin hulgaicha**as** iin aibal

¹¹ Онербаян, Ц. (1998:157)에서는 '사람, 사물 및 상태를 특정 인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소유됨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를 재귀-소유화법칙'이라고 지적하였다.

¹² Poppe, N. (1991:79)에서는 재귀-소유격의 여·처격 '-tayan/-tegen, -dayan/-degen'은 선고전몽골어 (Pre-Classical Mongolian)의 여·처격어미 '-da/-de'와 재귀-소유격어미 *-ban/-ben의 결합형이라고 설명했다.

¹³ 만주어 탈격어미 '-ci'와 몽골어 탈격어미 '-aas/-ees/-oos/-öös', 한국어의 '(으)로서'는 주격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가. jurgan **ci** tatabuha boode suwaliyame baicame isinjihabi

나. 구의로셔 부리웠든 집 아오로 查 嚴 訶 라 와논지라

다. yamnaas buoddallasan gert baitsaar irjee <清老:3:21a>

만주어와 한국어에서는 (가, 나)처럼 'jurgan ci, (구의로셔)'는 'baicame isinjihabi(查 嚴 訶 라 와논지라)'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몽골어에서도 (다)처럼 'yamun-ača'는 'baičar-a irejüküi'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주어로 쓰인 '구의' 등은 단체명사로서 뒤에 만주어의 '-ci'는 진정한 의미의 주격어미가 아니라 탈격어미이고 단체에 포함된 대표, 예를 들면 군수나 업무상의 담당자가 행동의 주체로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Otgontuul (2003:16).

¹⁴ 한국어의 {의서}는 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탈격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만주어와 몽골어의 탈격어미와 대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오릭 군스사람을 드리고 술의를 모라 前 徐 的 事 事 々 々 々 々 <三譯:10:20b>

예문 (20가, 나), (21가, 나)에서는 만주어와 한국어 여격어미 {-de}와 {의계}가 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를 몽골어에 바로 대응시키게 되면 의미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예문 (20다), (21다)와 같이 탈격어미 {-aas/-ees/-oos/-öös}를 붙여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¹⁵

이처럼 만주어 {-de}가 몽골어 탈격어미 {-aas/-ees/-oos/-öös}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만문 문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명사뒤에 'olho-(조심하다), sengguwe-(무서워하다), gele-(무서워하다), jaila-(비키다, 탈옥하다), fonji-(묻다), giru-(부끄러워하다), donji-(들다), taci-(배우다)'등의 동사들이 쓰이고 해당 명사에 여·처격어미 {-de}가 붙을 경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의 처격어미 {의서, 에서}는 시간이나 장소 등의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동작의 출발점(出發點)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주어와 몽골어에서는 이러한 출발의 의미를 여·처격어미 아닌 탈격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2) 가. 내 산 에서 느리와 살오려 호되 <三譯:2:18a>

나. bi alin ci wasime banjiki seci

다. bi uulnaas buuj aj töröy hemeebes

(23) 가. 술의 를 모라 南徐 의서 써나드리고 <三譯:10:20b>

나. sejen be dalime nan sioi ci juraka.

다. tergiig nalhalj nansiogoos mordab

(22가)와 (23가)에서 보면 한국어 처격어미 {에서}는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서}의 의미는 (22나)와 (23나)처럼 어떤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만주어의 탈격어미 {-ci}와 (22다), (23다)에서 나타나는 몽골어의 탈격어미 {-aas/-ees/-oos/-öös}와 대응한다.

3.2 만주어 {-de}가 한국어, 몽골어 구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서는 원래의 구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어미가 없는데 속격의 {-i/-ni}, 대격의 {-be}가 구격의 의미를 나타낸다.¹⁶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는 몽골어의 구격어미 {-aar/-eer/-oor/-öör}또는 한국어의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구격어미 {으로/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4) 가. gisun be bithe de araci wajirakû ..

나. 말을 글 로 쓰되 못지못흐니 . <三譯:10:7a>

다. ügiig bichgeer bichij barahgui

(25) 가. emu erin i jili de weihukeleme tuwafi

나. 한 때 성 으로 가키야이 보와 <三譯:3:17a>

다. negen tsagiin hilenggeer högömsöglön üzej

예문 (24가)와 (25가)에서는 모두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는 (24다)와 (25다)에서 나오는 몽골어의 구격어미(instrumental) {-aar/-eer/-oor/-öör} 와 (24나), (25나)에서 나오는 한국어의 구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¹⁵ 이와 관련하여 Hasbaatar (1991:149)에서는 '처격어미가 탈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중세몽골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세몽골어에서 여·처격어미가 탈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esugiŋen söni-de edür čaitala bülekü büi-e <SHM:85>

2. qan ečige-de busu ese ke'ekdejü <SHM:245>

¹⁶ Hasbaatar(1991:149)에서는 '처격어미가 탈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중세몽골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잘못 보고 다음 예문을 보였는데 예문 (1)과 (2)에서 나타나는 몽골어 {-de} 어미가 여·처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esugiŋen söni-de üdür čaitala bülekü büi-e <SHM:85>

2. qan ečige-de busu ese ke'ekdejü <SHM:245>

3.3 만주어 {-de}가 한국어 몽골어 방향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는 방향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가 없고 구격과 마찬가지로 {-de}가 방향격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⁷ 몽골어의 방향격어미(directive) {-ruu/-rüü/-luu/-lüü}¹⁸와 한국어 방향격어미 {으로/로}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6) 가. alin **de** genehe
나. 산 으로 가니라 < 譯:10:7a>
다. uul **ruu** odob
- (27) 가. amargi boode dosika
나. 후 당으로 드러가니 < 譯:3:14a>
다. hoid gerlüü orob

(26가)와 (27가)에서는 만주어 {-de}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6나)와 (27나)에서는 한국어의 방향격어미 {으로}, (26다)와 (27다)에서는 몽골어의 방향격어미(directive) {-ruu/-rüü/-luu/-lüü}에 대응하고 있다.¹⁹

예문 (26다)와 (27다)에서 나타나는 몽골어의 방향격어미 {-ruu/-rüü/-luu/-lüü}는 구어(口語)에서 여·처격어미 {-d/-t}와 혼용되는 양상이 있는데 이는 구어(口語)에 있어서 의미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어에서 방향격조사가 격조사 체계 중에서도 근래에 생겨난 것이므로 이것이 생겨난 것 전에 그 의미를 여·처격조사가 대신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4 만주어 {-de}가 몽골어 공동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서는 공동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어미가 없지만²⁰ 여·처격어미 {-de}가 몽골어의 공동격어미 {-tai/-tei/-toi}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도 다음 예문 (28나)와 (29나)에서는 여격 {의계}와 대응하지만 공동격 {와/과}의 의미와 대응하기도 한다.

- (28) 가. boihoji **de** acafi
나. 主人 의계 보고 가자 < 清老:3:4a>
다. geriin ezen**tei** uulzaad
- (29) 가. lu su geneñ kungming **de** acaha manggi
나. 魯 肅이 가서 孔明 의계 뵈니 < 譯:4:10a>
다. Lu su odoj kunming**tei** uulzsanii hoino

예문 (28가)와 (29가)에서 나타나는 만주어의 여·처격어미는 의미와 기능이 (28나)와 (29나)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여격과 일치한다. 그러나 (28나)와 (29나)처럼 몽골어의 경우 여격이 아닌 공동격 {-tai/-tei/-toi}와 의미가 일치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것을 통하여 만주어 {-de}가 원래의 여·처격이란 의미 외에 한국어의 방향격 {으로/로}, 도구나 수단을

¹⁷ Мужиддорж, Го.(1976:79)에서는 만주어 '-baru, -mari, -ici, -si'등을 방향격으로 봤다. 그러나 이것은 격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나 후지사이다.

¹⁸ 몽문에선 원래 'uruγu/ürügü'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독립되어 존재 하였으나 이는 현재 어휘적 의미가 사라졌고 선행 단어와 결합하여 해당 단어의 모음조화에 따라 {-ruu/-rüü, -luu/-lüü}라는 방향격어미의 형태로 변형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Болд, Л. (1985:102)를 참조.

¹⁹ 이남순(1983), 성광수(1999)에서 한국어의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를 비교하여 {-에}는 처소적 대상을 나타내고, {-로}는 방향 또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²⁰ 만주어에서는 공동격을 나타내는 특별 어미가 없지만 속격 {-i/-ni}를 지배하는 명사 다음에 만주어 'emgi'가 결합하여 한국어와 몽골어의 공동격의 의미와 대응한다. 만주어 {-i/-ni manggi, -i/ni emgi, -i/ni sasa}등은 한국어 공동격 {와/과}, 몽골어 공동격 {-tai/-tei/-toi}의 의미와 대응되는데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가. nikan i šusai **emgi** emu bade tefi bithe taciha
나. 淡 練과 呼 蹄 이서 글 비흔 < 清老:1:8a>
다. hitad oyutant**ai** (oyutnii hamt) neg gazart suuj bichig surab
- 2) 가. bi sini **emgi** gucu arame geneci antaka
나. 내 녀과 벗 지어 같이 었더호노 < 清老:1:10a>
다. bi cam**tai** nöhörlön yavbaas yamar be

나타내는 구격어미 {으로/로}의 의미와 대응하며 몽골어의 탈격 {-aas/-ees/-oos/-öös}, 구격 {-aar/-eer/-oor/-öör}, 공동격 {-tai/-tei/-toi}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통사론적인 특성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가 생략되는 문법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와 통사적 기능의 측면에서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여·처격어미의 생략

한국어에 있어서 처격 어미의 기능이 어떤 시공간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격 어미가 생략되면 그 문장이나 명사구는 적격성(well-formedness)을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 그러나 세 언어에서 다음과 같이 2개 이상의 명사가 병렬된 형태에 쓰일 때 여·처격어미가 마지막 명사에만 쓰이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33) 가. niyengniyeri, juwari, bolori, tuweri, duin forgon **de**

나. 春夏秋冬四節에 <清老:7:12a>

다. havar, jun, namar, övöl dörvön uliral**d**

(34) 가. ere buka honin, fa bisire honin, akta honin, niman i deberen **de**

나. 이 수羊 내 잇는 羊 불친 羊 염소 샷기에 <清老:6:8a>

다. ene ireg honi, ünere bühii honi, agt honi, ishigt

(33가, 나, 다)와 (34가, 나, 다)의 예문을 보면 병렬된 명사에 여·처격어미가 쓰일 때 중간에 들어가는 명사들의 경우 그것이 생략되고 마지막 명사에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어, 한국어, 몽골어²²에서는 여·처격어미가 생략되거나 {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4.2 만주어 {-de}의 통사론 기능의 특성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d/-t}는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어(adjective), 수사, 처소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 의문대명사(interrogative pronoun), 재귀대명사(reflexive pronoun),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를 동사와 연결해준다.

(35) 가. muwa ningge **de** jakûn jiha be gaiki sembi

나. 굵은 거새 여덟 돈을 맞고져 흥노라 <清老:8:6b>

다. бүдүүнд ni naiman zoos abya gene

(36) 가. uba**de** tuba**de** durime cuwangname yabuhai

나. 여귀 저귀 아스며 위력으로 힘흘제 <三譯:2:17a>

다. end tend bulaan deeremlen yavsaar

(37) 가. orho udu **de** emu fulmiyen

나. 집흔 언머에, 흔 못시노 <清老:1:25b>

다. övös heded neg boodol

(38) 가. mende**de** umai egšere oyonggo baita akû

나. 우리에게 아조 맞분 긴흔 일 업스니 <清老:2:19a>

다. bidend yaarah cuhal hereg baihgui

(39) 가. inde**de** encu giyan bi sembi

나. 제새 다흔 묘리 잇다 흥더라 <三譯:4:12a>

²¹ 한국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격어미가 생략되는 수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는 주격어미나 대격어미가 생략되는 경우와 매우 다르다. 곧 주격이나 대격은 통사적 구성면에서 격어미가 실현되지 않아도 그 명사구가 주어와 목적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 성분임에 반하여, 처격어미가 통합된 명사구는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 처격 어미가 생략되면 그 명사구의 문장 성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광호(2005:264)를 참조.

²² 각주 8번을 참고하십시오.

다. tuund öör yos bii gene

세 언어의 여·처격 어미는 예문 (35가, 나, 다)의 'muwa ningge de(굽은 거세, buduund)'처럼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사를, (36가, 나, 다)의 'ubade, tubade (여과 저과, end tend)'처럼 처소대명사를, (37, 나, 다)의 'udu de(언머에, heded)'처럼 의문대명사를, (38가, 나, 다)의 'mende (우리께, bidend)'처럼 인칭대명사를, (39가, 나, 다)의 'inde (제께, tuund)'처럼 제귀대명사들을 각각 동사와 연결해주고 있다.

만주어의 'akû, bi'와 몽골어의 '-tai'(bui), 'ügei'가 명사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고 그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게되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만주어 여·처격어미 {-de}와 몽골어 여·처격어미 {-d/-t}가 붙는 현상이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40나)와 (41나)처럼 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²³

- (40) 가. suweni bade hûcin bio akûn
 나. 너희 싸히 우물 잇'-나 업느냐 <清老:3:1a>
 다. tanai gazart hudagtai yu ügüi yu
- (41) 가. hûcin muke de nimaha akû
 나. 우물 물 에 고기 업고 <小兒:7b>
 다. hudgiin usand jagasgui

예문 (40가, 나, 다)의 'bade (싸히, gazart)'와 (41가, 나, 다)의 'hûcin muke de (우물 물에, hudgiin usand)'처럼 여·처격어미는 명사에 결합된 만주어 'akû, bi'와 몽골어 'tai, ugei'의 앞에 오는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에 붙어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만주어 {-de}와 몽골어 여·처격어미 {-d/-t} 및 한국어 여·처격어미는 피동사의 앞에 나타나서 행동주(agent)의 의미를 가리키는 특징이 있다. 다음 예문 (42가, 43가, 44가, 45가)에서 나타나는 {-bu}는 만주어의 사동이나 피동을 뜻하는 접미사이다. 그러나 (42다, 43다)에서 나타나는 'barigdab', 'eleglegdene' 등 동사의 {-gda/-gde}는 몽골어의 피동사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 (42) 가. coohai niyalma de jafabuha
 나. 군스 사롱 의께 잡히이다 <三譯:6:4a>
 다. tsergiin hünd barigdab
- (43) 가. ts'oots'oo de basubumbi
 나. 曹操 의께 우임이라 <三譯:4:4b>
 다. tsootsood eleglegdene

예문 (42가, 나, 다)의 'jafabuha (잡히이다, barigdab)'와 (43가, 나, 다)의 'basubumbi (우임이라, eleglegdene)' 등은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의 피동형에 있는 동사들이다. 이런 피동사 앞에 있는 여·처격어미는 언급한 세 언어에서는 동작의 주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다음 예문 (44)와 (45)처럼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의 여·처격어미는 사동사 앞에 나타나고 사동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피사동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44다)와 (45다)에서 나타나는 'idüülye', 'kelüülse' 등 동사의 {-uul/-üül}²⁴ 몽골어의 사동태 표지이다.

- (44) 가. andase de ulebuki
 나. 나그네들 의께 먹이자 <清老:3:8a>
 다. zochido᠔ idüülye
- (45) 가. be aifini cenghiyang de alanabuha kai

²³ 『소아론(小兒論)』과 『팔세아(八歲兒)』에서 이런 예문들이 많이 나타난다.

²⁴ 몽골어에서는 능동태, 수동태, 사역태, 상호태, 공동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Poppe(1954:249)를 참조.

- 나. 우리 불셔 승상 썩 알외게. 흥엿노라 <三譯:6:24a>
 다. bid hediine cenghiyang **d** helüülse**n** boloi

예문 (44가, 나, 다)의 'ulebuki (먹이자, iduulye)'와 (45가, 나, 다)의 'alanabuha (알외게 흥엿노라, heluulsen)' 등은 사동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만주어와 몽골어, 한국어에서 피사동주에 여·처격어미가 결합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만주어 여·처격어미 {-de}와 몽골어 여·처격어미 {-d/-t}는 단문(單文 simple sentence)에서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나타내고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를 나타낸다.

- (46) 가. bi tondo hūda be **sinde** alara
 나. 내 고든 갑슬 네게 알월 거시니 <清老: 5:17b>
 다. bi jinhene üniig **chamd** helye
 (47) 가. morin i fajan be **šoro de** tebuhebi
 나. 물 쏘 을 광지에 답아시니 <清老:7:1a>
 다. homooliig **sebegt** hiijee

예문 (46가, 나, 다)의 'sinde, (너게, chamd)'는 만주어와 몽골어 및 한국어의 단문(單文)에서 간접 목적어를 가리키고 있다. (47가, 나, 다)의 'šoro de, (광지에, sebegt)'은 단문(單文)에서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절(adverbial modifier of place)되고 있다.

그러나 만주어 {-de}와 몽골어, 한국어의 여·처격어미는 중문(重文 compound sentence)에서 시간, 이유, 조건을 가리키는 부사절(adverbial clause)된다.²⁵

- (48) 가. bithe akū ohode udu baturilame²⁶ gisurehe
 나. 글 업슬 작시면 비록 영웅이라 닐러도 <三譯:2:25b>
 다. biciggui bolhod **d** hedüi baatarlan ügüüle**h**
 (49) 가. ts'oots'oo cooha gidabuha **de** urunakū amargi bade genembi
 나. 曹操의 군스 패하면 반드시 북녁호로 갈싸시니 <三譯:3:21a>
 다. tsootsoogiin tsereg daragdaha**d** erhgüi hoid gazart odno
 (50) 가. nure dagilafi kundulere **de** jeo ioi hendume
 나. 술 장만하고 뒤접힐 제 周瑜 | 니로되 <三譯:4:8b>
 다. darasu bazaaj hündle**hed** je io ügüülerüün

위의 예 (48가, 나, 다)에서 {-de}는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adverbial clause of aspect)이고, (49가, 나, 다)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adverbial clause of cause)이며, (50가, 나, 다)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adverbial clause of time)인데 세 언어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만주어 '-de'가 관용에 나타나는 경우

만주어의 여·처격 {-de}는 만주어 'turgun, siden, doigon, andan, nergin, jalin'등의 단어 뒤에 나타나 여·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와 몽골어의 여·처격의 의미와 대응된다.²⁷

만주어 'jakade'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속격어미 {-i/-ni}를 취하여 {...i/ni jakade}로 표현되며 한국어의 여격 {의게}, 몽골어의 여·처격의 의미와 일치한다. 만주어 'jaka'가 여·처격어미 {-de}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로 관용구화 되어 쓰이고 있다.

- (51) 가. bi inu cenghiyang **ni jakade** sini unggihe bithe be safi <三譯:6:24a>

²⁵ 최동권(2004:14)을 참조.

²⁶ 만주어 문어 형은 baturilame인데 '三譯總解'에서는 baturilame로 나타난다. baturilame는 baturulame의 誤記.

²⁷ 최동권(1988)에서는 만주어의 이런 단어들을 한국어의 의존명사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보면서 그들의 내포문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보았다. 여기는 그 단어들 중에서 만주어 여·처격어미와 결합하여 여·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만을 살펴보았다.

- 나. 나 도 승상 의계 네 보낸 글 을 보고
 다. bi bas cenhiyand chinii ilgeesen bichgiig üzej
 (52) 가. tere inenggi hiowande **ijakade** acaha manggi <三譯:10:11a>
 나. 그 날 玄德 의계 뵈니 되션논
 다. ter ödör hiowand uulzsanii hoino

예문 (51)과 (52)에서 보면 만주어의 {-de}는 관용구 {i/ni jakade}에서 나타나 한국어와 몽골어의 여격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 예문 (53)에서는 만주어 {-i/-ni jakade}가 한국어의 처격 {에서}, 몽골어의 장소를 가리키는 처격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53) 가. monggo booi **jakade** jiyangjiyün be yertebuhe be safi <三譯:6:21a>
 나. 장막 의셔 장군 을 편잔저이흠 을 보고
 다. mongol gert janjnii ichingüirehiig üzej

또는 만주어 {-i/-ni turgunde}, {-i/-ni sidende}, {-i/-ni jalinde}, {-i/-ni dalbade}등은 관용구로 쓰이며 한국어와 몽골어의 여·처격의 의미를 나타낸다.

- (54) 가. ainu ere ajige weilei **turgunde** wakalambi <三譯:1:11a>
 나. 엿지 이 적은 일에 타스로 그릇너기느니
 다. yaahan ene ochüühen heregt buruutgana
 (55) 가. orin ba **isidende** niyalma boo akû <清老:1:13b>
 나. 二十里 사이에 人家 | 업스니라
 다. horin gazart hün gergüi

예문 (54가)에서는 명사와 'turgunde'가 (55가)에서는 명사와 'sidende'가 만주어 속격어미 {-i}와 결합하였고 'turgun, siden'은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와 결합하여 몽골어와 한국어의 (54나, 다)처럼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며 (55나, 다)에서는 단위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의 기능과 의미를 한국어, 몽골어와 비교해 보았다. 세 언어의 여·처격어미들은 의미와 통사론적인 기능이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주어 {-de}는 중세몽골어여처격어미 {-da/-de, -ta/-te}와 기본적으로 같은 어미인데 그것들은 한국어와 아주 다른 형태들이다.

2.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는 한국어의 처소·방향·원인·유래·시간적·공간적 범위·단위나 셈의 기준등을 나타내는 처격의 의미 뿐 아니라 사물의 직접 수행자나 대상 등을 가리키는 여격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며 그 외에도 한국어의 방향격어미 {으로/로},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구격어미 {으로/로}의 의미와 대응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한국어의 처격 {에서}는 출발점 의미를 나타내는데 만주어의 여·처격 {-de}와 몽골어의 여·처격은 출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차이점을 확인 했다.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de}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인 {-d/-t}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구격어미 {-aar/-eer/-oor/-öör}, 탈격어미 {-aas/-ees/-oos/-öös}, 공동격어미 {-tai/-tei/-toi}, 재귀·소유격의 여·처격어미 {-daa/-dee/-doo/-döö, -taa/-tee/-too/-töö}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만주어와 몽골어에 있어서 여·처격어미 {-da/-de, ta/-te}의 형태가 두 언어에서 대격, 구격, 탈격, 공동격어미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만주어 {-de}는 후대에서는 주로 여·처격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어에서 대격 {-be}의 형태를, 탈격 {-ci/-deri}의 형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수단, 재료, 도구

의 구격을 나타내는 형태가 특별히 없었다. 몽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격 {-yi/-i}의 형태를 어떤 동작의 시작할 장소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탈격 {-ača/-eče}의 형태가 각각 수행하게 되었다.

3.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주어의 {-de}는 단문(短文)에서는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가 되고 중문(重文)에서 명사화내포문과 함께 쓰일 때는 조건이나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는 만주어 {-de}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d/-t} 및 한국어의 여·처격어미는 문장에서 피동사의 앞에 나타나 행동주(agent)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사동사 앞에 나타나 사동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피사동주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참고 자료

- 「三譯總解」(1774)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영인본, 1956.
- 「小兒論」(1777)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영인본, 1956.
- 「八歲兒」(1777)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 영인본, 1956.
- 「清語老乞大 新釋」, 정광, 태학사, 1998.

■ 약호

- <三譯> 「三譯總解」
- <清老> 「清語老乞大」
- <小兒> 「小兒論」
- <SHM>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 참고문헌

- 김상돈, 이경희(1999), 「근대국어의 격 연구」, 「국어의 격과 어미」, 도서출판 월인.
- 박은용(1973), 「滿洲語文語研究」 2, 螢雪出版社.
- 성백인(1999), 「조선조 정학서 해제」,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 이남순(1986), 「『에게』의 代用形態 ‘한테, 더러, 보고’의 文法」, 眞檀學報(61), pp153-172
- 이광호(2005),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정 광(1998), 「清語老乞大 新釋」, 태학사.
- 최동권(2004), 「만주어 격어미 연구」, 「한국어의 역사」, 보고서.
- 홍운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1981), 「近代國語의 處所表示와 方向表示의 格」, 東洋學 11, pp35-54.
- Otgontuul, T.(2003), 「한국어와 만주어 격어미 비교 연구」-청어노걸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권, 강성춘, Otgontuul, T. (2008), “만문 산국지”, 한국학술정보.

Ozawa, Sh.(1976), *On the dative-locative suffixes in the language of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Nihon-Monggoru Gakkai Kaiho, 6, pp15~21.

Poppe, N.(195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Otto Harrassowitz, 유원수 역(1992),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Poppe, N.(1977), On some altaic case forms, CAJ, 21:1, pp55-74.

Sinor, D.(1976), The *-t~*-d local suffix in Uralic and Altaic, Hungaro-Turcica, Budapest, pp119~127.

Hasbaatar(1991), *Monggol manju kelen-ü sudulul*, Kōke qota.

Захарова, И., (1897), *Грамматика маньчжурского языка*, Санктпетрбург.

Болд Л., (1985), *Монгол хэлнүүд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хэл зүй*, ШУА, ХЗХ, УБ., 102-127 -р тал.

Мижиддорж Го., (1976), *Монгол-Манж бичгийн хэлний харьцаа*, УБ.

Өнөрбаян Ц., (1988),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Б.

Abstract

Meaning feature of suffix {-de} of Manchu language. -compared to Korean and Mongolian-

This paper is to study syntac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Manchurian locative/dative affix {-de}, Mongolian and Korean locative/dative affixes.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ongô nogôltæ a teaching material of Manchurian language written in Korean in the 18th century with a printed Manchurian material at that time. The Korean material which is compared with Manchurian language is diachronically a modern Korean (from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Manchurian language, however, had been used until the 17th or 18th century, and no longer used nowadays. It brings much difficulty to study systematic case affixes because of the lack of spoken Manchurian. Instead we can find perfectly written classic Manchurian materials, so I try to fi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of Manchurian case affixes based on the study of systematic Korean and Mongolian case affixes.

This study shows that the locative/dative case affixes of Korean, Manchurian and Mongolian which belong to Altaic language are almost same in the meaning and function. The affixes denote originally locative/dative meaning and function, but sometimes they represent other case. In a morphological level the Manchurian and Mongolian locative/dative {-da/-de'} and {'-ta/-te} are originally same affixes, but they are totally different forms from Korean.

In a semantic level the Manchurian {-de} had a characteristic of representing instrumental, ablative, appositive, accusative, reflexive-possessive as well as the meaning of locative/dative affixes in Mongolian. The reason is that the locative/dative affixes {-da/-de'} and {'-ta/-te} are old forms in Manchurian and Mongolian and there was a case they denoted accusative, instrumental, ablative and appositive cases in both languages. The {-de} affix, however, came to represent a locative/dative case later from a diachronical point of view.

In a syntactic level becomes an indirect object in a simple sentence and it functions as an adverb clause representing condition, time and reason in a complex sentence when it used with a nominal embedded clause. The Manchurian {-de}, the Mongolian locative/dative affixes {-dur/-dür} and {-tur/-tür} and the Korean locative/dative affixes have a characteristic of meaning an agent when they come before a passive verb, and meaning a theme affected by the action of a causative subject when they come before a causative verb.

Topic words: written Manchurian language, locative/dative, directive, instrumental, indirect object.